

광주·전남지역 인사 오찬간담회

광주정신을 지역을 위한 항쟁이 아닌 국민통합을 위한 역사적 몸부림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합니다.

광주에 오면서 이런 저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영하고 격려해줘서 마음이 놓였고 고마웠습니다. 광주의 저의 각별한 인연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80년대 초 부산에서 학생들이 많이 붙잡혀와 재판을 받았습니 다. 대부분은 광주에 관한 이야기를 부산시민들에게 퍼트리는 것이 그 이 유였습니다. 80년대 합창되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정가, 5월 의 노래 등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후 87년 6월 부산 시민들의 항쟁의 주제는 광주였다. 저도 광주사람들의 정치적 지향과 함께 정치를 해왔다. 지난 경선에서 광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지금은 대통령이 돼서 광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광주시민 못지않게 광주정신을 각별히 갖고 있습니다. 광주 정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나 챙기고자 하는 욕심을 모두 광주정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니 었습니다. 광주정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성격이 내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역사에서 앞으로 광주정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뒤에 이어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유, 정의, 민주주의, 민주를 위한 항쟁이었고 그것이 6월 항쟁에서 꽃을

피우게 됐으며 수평적 정권교체와 참여정부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정부가 잘하면 정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할 것이며 못하게 되면 어둡게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역 간의 분열, 괴리, 등 극복해 나가고 국민들이 하나 되는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광주정신을 지역을 위한 항쟁이 아닌 국민통합을 위한 역사적 몸부림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합니다.

참여정부가 잊지 않고 꼭 해야 할 것은 분열과 불신, 대립하고 있는 분열의 잠재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하나 되는 통합, 그것이 곧 광주정신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광주의 역량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내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원칙을 저버리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화 국민통합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각별한 신뢰를 당부합니다. 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